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ichurch.or.kr

2002년 홍해작전

너희는 위로하라 네 백성을 위로하라

-6월6일 새벽 5시 개전-

올해 우리교회가 진행하는 홍해작전의 주제는 "너희는 위로하라 네 백성을 위로하라 (사40:1)"로 정해졌다. 현대인은 매일을 살아가며 수없이 상처받고 해침을 받아도 위로 받을 데가 없다고 한탄을 하며 제각기 길을 찾아가나 그들이 만나는 것은 더 큰 실망과 상처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에 충분하다. 이 말씀은 주전 700여 년 전 하나님을 떠난 유대민족이 이방민족의 칼과 화살에 쓰러져 죽어갈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합한

한 말씀이 된다. 서로가 헐뜯고 죽이고 비방하는 죄악만이 가득 찬 이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일 것이다. 이제 6월6일부터 20일간 매일 새벽 5시부터 진행되는 홍해작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향하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 가정이 다시 서로 우리를 통하여 이 백성이 위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공동의회 개최

26일(주) 찬양예배 후

총회 집사 20명과 권사 40명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26일(주) 찬양예배 후 개최된다. 12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집사후보 40명과 권사후보 44명의 명단은 본지 2면과 3면에 게재되어 있으며 후보 순서는 집사는 제직회에서 득표에 의한 종다수로, 권

사는 연령순으로 정해졌다. 본 교회 세례교인은 모두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금주는 모두가 기도하며 담전 3:8~13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꾼이 선출되도록 준비한다.

사랑부 '사랑의 큰잔치' 개최

5월26일~6월1일

우리교회가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교회 설립 다음해인 1992년에 개설한 사랑부(부장:이승우 집사)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의 큰잔치'를 개최한다.

6월1일(토) 오후3시 감사예배를 드리며, 잔치 기간 중 계속하여 전시회(작품, 사진전)를 102호 미스바 홀에서 갖게 된다.

서울강남노회 체육대회

6월6일 오전 9시 잠실 실내체육관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종운 목사)는 노회 산하 76개 교회가 참가하는 '서울강남노회 체육대회'를 6월6일 현충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입장은 오전 9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9시 30분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경기를 진행한다.

한편 교회는 농구, 배구, 족구, 릴레이, 줄다리기, 박터트리기 경기에 참가할 선수를 모집하고 있다. 선수로 경기를 하며 친목을 다질 성도는 사무국으로 신청 바란다.

8교구 가족소개회 시간

오늘 찬양예배 시

교회는 교구식구들의 친목과 연합을 위해 매월 3째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교구가족을 교회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달은 8교구 순서로 교구 전 가족을 교회와 성도 앞에 소개하고 특별찬양을 드리게 된다. 연습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6교구 연합모임

5월25일(토)오후 6시

6교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회의 시간을 갖는 연합모임이 노송성 장로 맥에서 있다. 이 시간에 성도간의 교제와 함께 오는 7월에 있을 교구소개회 시간도 미리 연습하게 된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 (5월 17일 현재)

정선희, 김의환, 임주희, 구현진, 김동환, 김선옥, 임슬기, 안다인, 김태현, 김준길, 여학동, 박종혁, 이경준, 박성남, 구라운, 박성준, 배진호, 김민수, 최훈희, 허영재, 이창현, 박준성, 정달상, 서정자, 정재은, 박치연, 박광현 (다음주 계속)

금주의 말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개역개정판 엡 6:1-4)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NIV Eph 6:1-4)

집사 후보명단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알기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반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닦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 자들도 이와 같이 정중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개역개정판 딤편 3장8-13)

지난 12일(주)제직회에서 투표된 집사후보 179명 중 다득표자 40명을 소개한다.

번호	사진	출생년도 수세년도 교회봉사 직업 또는 직장 가족관계
	성명	

1	 53 72 임마누엘 베들레헴 유년부부장, 다락부장, Vision2020위원 · 대우전자부장 · 강윤숙집사와 1남1녀	11	 50 80 베들레헴 임마누엘, 갈렙 찬양대, 중등부부장 · 프랑스대사관직원 · 최정희집사와 2녀	21	 56 85 가브리엘 찬양대, 부다락부장 예산상사대표이사 · 허숙집사와 1남	31	 58 78 교구간사, 새가족부교사, 다락방 장 · 하이뉴스부장 · 전아미집사와 2녀	
2	 45 78 새가족부교사, 다락부장 제일부흥신대표 · 박영자권사와 3남	12	 47 66 장년2부부장, 베들레헴찬양대, 다락부장 · 현대건설상무부 · 김현정권사와 1남2녀	22	 48 65 다락부장, 베들레헴, 미술부장, 에배위원, 로잔위원회 (주)동광빌브공업대표 · 이인숙집사와 1남1녀	32	 47 68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 권할 · 심일종기대표 · 김정옥권사와 4녀	
3	 54 70 가브리엘, 베들레헴 찬양대 장년3부부장, 부다락부장 · 서울오토대표 · 이영희집사와 2남1녀	13	 55 70 영어에배부 부장, 부다락부장 가브리엘 찬양대 (주)오리칼살장 · 김혜아집사와 1남3녀	23	 46 65 베들레헴, 3부연금위원 회사원 · 박종례집사와 2녀	33	 60 86 · 손재지기자, 멀티미디어단원 권 할, 유아부부장, 목회자세미나서 기 · 보연방송대표 · 김정란집사와 2녀	
4	 50 64 교구간사, 베들레헴 갈렙찬양대, 다락부장 · 강남열신대표 · 오충례집사와 1남1녀	14	 59 77 장년부부장, 3부연, 4교구간사, 인드레총무 · 대성택배물류대표 · 박예숙집사와 2녀	24	 55 84 베들레헴, 에배위원회, 70인전도 대 · 공무원 · 배은희집사와 1남1녀	34	 52 74 부다락부장, 가브리엘 찬양대 · (주)KCO대표 · 김선영집사와 2남	
5	 49 65 · 상담부, 베들레헴 찬양대, 현금계 수 현금위원 · 군포신경외과원장 · 남태순권사와 1남2녀	15	 56 86 · 에바디부감 · 안아비인후과원장 · 이명신집사와 1남1녀	25	 46 74 · 새가족부교사, Vision2020기탁부장, 율 리아총무, 교구간사, 베들레헴, 상조외 봉사부장 · (주)유니넷대표, (NDU)경정경찰대표 · 방승희집사와 1남3녀	35	 47 95 · 부다락부장, 할렐루야, 베들레헴 · 신우모대표 · 황오권권사와 2남	
6	 55 70 교구간사, 남승교회간사, 신혼가정부 감, 베드로남승교회부회장, 1부연, 2 부연, 임마누엘 찬양대, 제스티필드양복점대표 · 이은자집사와 1남2녀	16	 40 88 부다락부장, 임마누엘, 베들레헴 찬양대 · 상동기업 · 조상희권사와 2남	26	 36 68 · 현금계수위원 · 지영업 · 정광권권사와 3녀	36	 47 78 · 다락부장, 베들레헴 시온, 가브리 엘 갈렙 찬양대, 장년3부교사 · (주)르본교문 · 윤숙희집사와 1남1녀	
7	 61 79 · 장년부교사, 현금계수위원, 상조 부 · 가나기독교백화점대표 · 김미영집사와 1남	17	 44 86 · 대학부부장, Vision2020교육부 장, 부다락부장 · 국제물류 · 이영인집사와 2남1녀	27	 40 55 · 할렐루야, 으빌 찬양대지휘, 다락 부장, 베들레헴, 모세찬양부장 · (주)동우유니온대표이사부사장 · 서옥덕권사와 1남	37	 57 73 · 할렐루야 찬양대, 8교구간사 · 신협상무이사 · 재오록집사와 1남1녀	
8	 53 66 · 멀티미디어단장, 부다락부장, 새가족부교사, 에배위원 (주)벨트렌스대표 · 김영란집사와 2남	18	 50 75 · 장년1부부장 · 상용양회상무 · 이영자집사와 2남1녀	28	 43 89 · 현금계수위원, 다락부장 · 경기지방중사부사장 · 유영석권사와 1남1녀	38	 47 72 · 시랑부 (주)테크노랜드관리부과장 · 헌연석권사와 1남2녀	
9	 41 87 · 사무국직원 · 교회직원 · 황재연권사와 2남	19	 39 59 · 장년5부부장, 경로대학교사, 다락부장 · 영조원동장대표 · 이용자권사와 1남1녀	29	 46 64 · 에배위원, 엘리야회계 · 우리밀갈곡수대표 · 이영희권사와 2남	39	 48 76 · 교구간사, 베들레헴 찬양대 · 천호초등학교교감 · 윤영범집사와 1남2녀	
10	 43 79 · 베들레헴, 새가족부교사, 부다락부장 · 운수업 · 함은희권사와 1남1녀	20	 57 72 · 에배위원, 부다락부장 · 연예인 · 내연신집사와 1남1녀	30	 55 83 · 다락부장,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 양대 · 국가정보원 · 김남옥집사와 1남1녀	40	 53 92 · 식당봉사 · 은혜이사점대표 · 오규자집사와 1남1녀	

권사 후보명단

1	 최금례 34 75 다락방장, 은빛찬양대 임송옥성도와 2남2녀	12	 박정섭 47 64 할렐루야, 시온찬양대 오길택집사와 1남1녀	23	 김경아 50 80 다락방장, 예배위원 안평성도와 1남1녀	34	 이순영 51 74 예배위원 이관규성도와 1남1녀
2	 임인숙 38 56 다락방장, 찬양대 장근우성도와 1남2녀	13	 방승희 47 74 다락방장, 찬양대 우상태 집사와 2남2녀	24	 김선이 50 84 찬양대 2녀	35	 정옥희 51 79 다락방장, 평신도신양장 우지원집사와 2녀
3	 이윤정 42 80 할렐루야찬양대 민충현집사와 2남	14	 김정희 48 77 헌금위원, 다락방장 이승래집사와 2남	25	 김우숙 50 88 부다락방장, 예배위원, 식당봉사 강승일집사와 2녀	36	 한성옥 51 78 할렐루야찬양대, 다락방장 박두호성도와 1남1녀
4	 박우주 44 57 새가족부 이갑진성도와 2남	15	 신현이 48 78 부다락방장, 할렐루야찬양대 이정윤 성도와 2남1녀	26	 이옥희 50 67 다락방장, 장년3부 이흥기 성도와 2남	37	 허현숙 51 68 다락방장, 호산나찬양대 백우기집사와 1남1녀
5	 김희진 45 70 할렐루야, 시온찬양대 신종건성도와 1녀	16	 이영주 48 84 임마누엘찬양대 김동훈집사와 2남	27	 이인숙 50 64 청년부교사, 찬양대원, 안내위 원, 다락방장 양준경집사와 1남1녀	38	 김구진 52 79 할렐루야 찬양대 이무남 성도와 1남2녀
6	 장효옥 45 94 다락방장 1녀	17	 최정순 48 68 다락방장 이찬호집사와 2남1녀	28	 진경옥 50 80 할렐루야, 호산나찬양대 홍은표집사와 1남1녀	39	 김복순 52 76 시광부, 다락방장 정동학집사와 1남1녀
7	 김미진 46 79 다락방장, 찬양대 1남1녀	18	 김정남 49 82 시온찬양대 이기택성도와 2남1녀	29	 김명심 51 81 다락방장, 초등부교사 1남	40	 김진숙 52 75 부다락방장, 70인전도대 서춘식집사와 2녀
8	 이신정 46 80 다락방장, 호산나찬양대 손희창성도와 1남1녀	19	 오영숙 49 94 부다락방장, 유아부 최창희와 1남 1녀	30	 김정운 51 79 임마누엘찬양대, 초등부교사, 교 구간사 박승동집사와 1남1녀	41	 김찬진 52 68 고등부교사, 시온찬양대 최영렬집사와 2남1녀
9	 이영인 46 88 (이전 청년부 교사) 김대송집사와 1남2녀	20	 이순희 49 76 유년부교사, 다락방장, 시온찬양 대 조동환집사와 2남1녀	31	 박창휘 51 69 헌금위원, 다락방장, 길림찬양대 2남1녀	42	 이인순 52 78 사무국 외계담당 오광환집사와 1남1녀
10	 전원순 46 76 할렐루야, 호산나찬양대 장경술성도와 3남2녀	21	 이정연 49 66 헌금위원, 유아부 교사 최광성집사와 1남2녀	32	 박태희 51 69 임마누엘찬양대, 부 다락방장 김영준성도와 2남	43	 이영자 52 72 다락방장, 기본리얼, 호산나, 클로리아 찬양대 이영조집사와 2남1녀
11	 김현숙 47 66 다락방장, 새가족부 교사 김복송집사와 2남	22	 전복례 49 71 임마누엘찬양대 이우상집사와 1남2녀	33	 오충례 51 74 할렐루야찬양대, 다락방장 최홍렬집사와 1남1녀	44	 장명순 52 77 다락방장 김재길성도와 2남

월드컵을 위한 기도

이갑진 장로(12교구·국가대표팀 단장)

월드컵의 열풍으로 온 나라와 세계가 뜨겁다.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다.

월드컵이 전 세계 약 600억 명의 사람들이 관람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는 지구인구의 약 10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단일 운동 종목으로서 이만큼 세계적인 경기가 또 있을까?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즐기는 운동이 수없이 많다. 그 가운데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인 모두가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운동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축구일 것이다. 축구경기란 길이 100~110m 너비 64~75m의 직사각형 경기장에서 양 팀 각각 11명의 선수들이 둘레 68~70cm 무게 450g 공기압력 0.6~1.1기압의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의 둥근 공으로 7.32m X 2.44m 크기의 골문에 손을 제외한 몸으로 공 넣기를 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하나의 공을 사이에 두고 펼치는 선수들의 격렬한 몸싸움과 묘기 그리고 그물을 출렁이는 골인에 환호한다.

그런데 이러한 축구경기에는 축구의 정신이 담긴 FIFA의 10대 행동 강령이란 것이 있다. 게임의 미덕(선)을 위해 (For the good of the game) 항상

- 1) 승리를 위해 경기한다.
- 2) 당당하게 경기한다.
- 3) 게임규칙을 준수한다.
- 4) 상대와 동료, 심판과 임원, 관중을 존중한다.
- 5) 페널티를 품위 있게 받아들인다.
- 6) 축구의 이익을 증진한다.
- 7) 부정, 마약, 인종차별, 폭력 등 스포츠에 해가 되는 것을 배격한다.
- 8) 부정의 압력에 저항하는 타인을 도운다.
- 9) 축구를 폄하 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한다.
- 10) 축구의 덕목을 지키는 자의 명예를 높인다.

대략 이러한 내용들이다.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의 축제에서 16강을 향한 우리의 염원이 뜨거울수록 우리는 이러한 축구경기 본래의 정신을 함께 담아야 기도했으면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월드컵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과 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라는 월드컵은 보다 신

앙적이었으면 좋겠다. 전쟁의 아픔 상처를 간직한 분단의 땅, 그러나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로 세계선교의 중심에 서게 하신 땅, 이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에 이어 이제 월드컵을 열도록 허락하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비운의 역사를 안긴 장본인 일본과의 공동개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이번 경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실까?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하나님은 남, 북군 중 누구의 편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신가?" 라는 물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물음이 더 중요하다고 설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하여 16강을 향한 우리의 믿음 기도는 이미 받으신 줄로 확신하자. 8강, 4강인들 왜 못 가겠는가? 지난 기간 그들과 속삭을 같이 하며 땀 냄새를 맡아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된 훈련 속에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들 국가 대표선수들을 위해 기도한다.

fighting!

사랑부 10주년 그 세월을 돌이킨다

사랑부는 정신박약이나 뇌성마비 등 지체부자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992년부터 운영해 온 교회학교다. 대개 장애인 대상의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현실이고 보면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사랑부를 운영해 온 것은 또 하나의 귀한 은혜라 할 수 있다.

특히 92년 5월 3일 개교 당시 학생 한 명에 불과하던 사랑부는 지금은 학생 43명을 포함한 70여명의 대식구를 거느린 부서로 성장했다. 지도 교역자 이성득 목사를 비롯해 부장 이승우 집사와 부감 김현영 집사, 여영숙 권사 등 봉사하는 교사만 28명이나 된다.

사랑부가 10년의 세월을 커오는 동안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안 거처간 많은 교역자와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갔다. 10년 동안 계속 사랑부 봉사를 해온 임희춘 집사는 "초창기 때는 아이들이 어리고 잘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10년의 세월 동안 매주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 어느덧 변화되고 믿음이 성숙한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근 사랑부는 휠체어가 부족해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필요량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답지해 성도간의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특별히 사랑부는 개교 10주년을 맞아 장애인을 향한 사랑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사랑부 한가족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일인 5월 26일 10시 15분 1층 사랑부실에서 전사회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랑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만든 작품들로 전시회를 연다. 또 6월 1일(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예배와 발표회, 만찬을 열 예정이다. 소망교회 장애인부와 밀알학교, 주몽재활원 등 여러 단체가 이번 행사를 찬조하기로 했다. 부장 이승우 집사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장애인들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만남과 교제가 이뤄지는 장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참석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민철(편집부)

우리 서울교회는 새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주일 1부 예배(9시)를 가족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교회학교 분반 공부실로 각각 흩어져 하나님 말씀공부와 소그룹을 통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처럼 빠른 시간내에 1부 가족예배와 소그룹 성공공부반이 우리 교회의 매력이고 힘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1부 가족예배는 어떠한가에 예배의 참석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 하고 또 이를 배우겠다고 탐방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 쉬우면서도 성경신학에 기초한 내용이 충실한 설교

흔히들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단지 주석 하는 것이 아니고 Application(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말씀이 현실적으로 살아서 움직인다고 평하며 서울교회가 성장한 가장 큰 요소로 이종윤 목사의 탁월한 설교능력을 꼽는다.

이 같은 이종윤 목사의 설교는 변화된 1부 가족예배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철저하게 성경 신학에 기초한 이종윤 목사의 강해 설교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흔히 들을수 있는 이야기들과 일상 용어를 사용한 대화식 설교로서 듣기 편하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움 없이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회중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들의 가슴을 파고 든다.

1부 가족예배의 조기 정착

▶ 효율적인 멀티미디어의 활용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멀티미디어의 각종 매체를 설교와 예배에 접목시키는 것을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하게 하고 한편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매체의 활용은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에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1부 가족 예배는 이 같은 미디어의 활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메시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트와에는 일부 교회에서 보듯이 설교와 동시에 설교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그림들을 띄우지 않는다. 이는 회중이 설교자가 아닌 화면에만 집중하는 것과, 이러한 보조수단이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예배의 경건함이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 말씀과 함께 주일 예배는 시작된다. 분명 우리의 1부 가족예배는 경건과 거룩이란 중요한 기본 정서를 담아 신중하고 절제된 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이루어진,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인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의 1부 가족예배는 한국교회의 예배문화를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예배문화의 정착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편집부)

이사이서 강해

시온의 회복

(이사야 61장 4 - 9절)



이중운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죄 값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나 후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와 고도에 재 정착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확대하여 오늘의 교회와 영적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됩니다.

1.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될 것이라는 약속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4절).

하나님은 황폐했던 시온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성읍이 재건될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 영국의 한 기사는 우리 나라를 향하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라고 하며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고 도시를 건설하도록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살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성별 받지 못한 영혼은 폐허된 집과 같고 무너진 성과 같아서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황폐했던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를 받았습니. 4절은 우리가 대대로 무너져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복구되고 질서 정연하게 되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 교회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5절).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종처럼 복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적이었고 압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온으로 물려와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농부가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종처럼 부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라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3. 이스라엘은 해방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6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수치와 능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해방과 기쁨과 영광의 날이 올 터인데 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분깃을 얻고 위로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정에서 혹은 이웃에서 일가친척 사이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우리 나라가 이와 같이 부흥한 것은 아시아의 제사장장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선교사 파송이 세계 5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좋은 환경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세대 동안 전 세계가 종교적으로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홀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세계에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12사도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제사장적 중보자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게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성소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노예라는 이름 대신 높고 거룩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봉사 직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된 것은 제사장직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출 19:6).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벧전 2:9). 왕 같은 제사장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분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일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4. 이방인들의 재물과 명예는 교회를 위하여 쓸 것이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6절). 전리품이 아닌 제단에 바쳐진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6절).

개종된 그들의 명예와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의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효시인 영국에 아직도 왕 제도가 있는 것을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왕실을 무척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왕실에 대한 애정과 여왕에 대한 존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은 나라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전국에, 전 세계에 비치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회복이 될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물을 바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5. 그들은 중성한 위로와 민족을 기릴 것이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7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수치와 능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해방과 기쁨과 영광의 날이 올 터인데 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분깃을 얻고 위로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죄 용서를 받은 기쁨과 천국을 상 받은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에 비교되는 꿈의 도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곳 역시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실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무릇 나 여호와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8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도와주시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계속 보전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9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알려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가친척을 만나거나 가정에서 혹은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패잔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고 세상에 이것을 증거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어 성경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주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603호(유치부에서 중등부까지)와 403호(고등부 이상 층. 청년에 이르기까지)에서 영어 성경 공부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 20명 안팎이 모여 가족적인 분위기로, 서로를 존중하고 채워주는 성경공부가 이곳에 활발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자는 403호의 문을 노크했다.

영어성경반은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그룹별 성경공부로 들어가는 데, 403호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갑진 장로(부장), 윤갑숙 권사(부감), JO DADSON 여사, 세 분이 리더를 맡고 계시고 각 그룹은 5-7명 내외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통 3-4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리더는 이 분들 말고도 김훈 집사(부감), 최공천 집사, 이학명 집사 등이 돌아가며 봉사하고 계시단다.

2001년 1월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수 정예의 성경공부를 계속해 오고 있는 영어성경반은 서울 교회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선생아>와 같은 단계라고 모임을 소개하면서도, 어린이처럼 즐겁게 성경공부를 하는 모습과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평신도의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영어성경공부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는 청년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영어성경반의 멤버들은 높은 자긍심과 결속력을

보여주었는데, 선생과 학생이 하나된 기쁨이 그 비결이라고. 선생님들은 이구동성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또한 한결같이 최고의 교사진이라며 자랑이 대단하시다. 지난 연말에는 성경공부반 전체가 애찬의 시간을 가졌는데, 잊지 못할 사랑을 나누셨다고 한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것을 나누며 서로 교통하는 성도의 교회가 살아있는 영어성경반의 만족지수는 그래서 이즈음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선교의 비전을 함께 갖는 귀한 복음의 산실을 꿈꾸는 영어 성경반. 20대의 청년 학생부터 60대 이상의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인 영어성경반에 세대차이란 없다. 오히려 다양함이 풍요로움으로 이어져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고 깊어질 것이 감사할 뿐이다. 게다가 민족공용어가 된 영어의 기초를 다지고, 책 중의 책이요,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동시에, 기구 같은 분위기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니 일거 삼득의 영어성경반인 셈이다.

지금은 분반공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모시고 영어예배로 모임을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예배와 분반공부는 모두

영어로만 진행되지만, 참여자가 모두 영어에 능통한 것은 아니다. 어느 권사님의 경우는 미리 나누어주는 교재를 손수 베껴 단어를 찾아 연습해 오는 열의를 보이시더니, 이제 는 수준급의 대화도 가능해졌단다.

처음에는 서울고 수줍어하던 학생들도 하나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귀와 입이 트이는 것은 기본이다. 아첨처럼 억지로 영어성경 테이프를 들으며 출퇴근하셨다는 어느 집사님은 영어성경반이 동기 유발의 계기가 되어 이제 하나씩 깨우쳐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신다고 한다. 21 세기는 영어 필수 시대이며,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려는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해서도 영어성경공부는 중요하다.

영어성경반은 초보자들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의 활발한 참여를 고대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영어 성경반을 두드리는 모든 분에게 책임과 사랑으로 섬김 준비가 되어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대학·청년부의 참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앞으로 단기선교활동을 비롯한 국제적인 선교 활동에 지원 가능한 일꾼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이다. 부담은 주님께 맡기고 동참 먼저 해보시길. 영어성경반의 문은 늘 열려 있다.

나소정 (편집부)

70인전도대

이규정 목사 (70인전도대 지도교역자)

수요일 오후, 비운후의 산뜻한 햇살과 초여름의 상쾌한 바람이 전도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다. 아무나 만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다. 70인전도대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전도자와 대상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은 전도지와 순례자를 들고 한티공원 쪽으로 나왔다. 오늘은 유난히 데이트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벤치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어픈을 꽃고 음악을 듣고 있는 예쁜 자매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서울교회 이규정 목사입니다.

전도하려고 왔어요. 잠시 앉아요 될까요?" 내가 를러지 셔츠를 입고 있어서인지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이 자매는 대학생인데 초등학교 시절 2년 정도 친구따라 교회 기본적인 있으나 그후 전혀 교회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준비된 영혼이다. 비교적 쉽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기도까지 했다. 기꺼이 사랑의 편지를 받았다고 했고, 조만간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약속하고 일어섰다.

2차 대상자 발견. 저쪽 길가에 차를 대고 오렌지를 파는 아저씨가 앉아있다. 강사가 잘 안되는 모양이다. 걸어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하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공 원앞에서 뺨뺨기기를 파는 아저씨. 거의 매주 만나 인사를 하

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했으나 교회 출석을 결단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다. 그의 인사소리에 활결음이 한층 가벼워진다.

"안녕하세요? 잘되시나요?" "오늘은 손님이 통 없어요."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시는 오렌지 아저씨. 부인이 전에는 교회에 출석했는데 이사는 후로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앙에 관심도 많아 복음을 제시하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하라고 권면했다. 사랑의 편지를 받기로 하고 부인과 함께 교회 출석도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기분 좋은 전도의 시간이었다. 준비된 영혼들을 찾으으니 말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제2기 몽골 단기선교팀 후원합니다

몽골단기선교 기도후원을 맺기원 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1일(화) 서울 한남CBMA전도초 청만찬에서 설교한다. 군선교연합회 창립30주년 기념식에서 군선교대상을 받는다. 23일(목)연목회 회장단 모임을 갖는다.
- 개업: 신용식 집사, 김신영 집사(1교구), 대동빌딩 13층에 플라 화장품 10호점 개점 (011-212-9323)
- 개업: 이계원집사·김문숙 집사 (9교구)하나공인증개소(428-2800)
- 특녀: 이명계, 김현숙 성도가정(12교구) 5월15일
- 박정선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음악제에 작곡발표차 출국

5000원의 식사제공: 이영기 장로 이영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1 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가정의 화평과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외약도 :

